

박근혜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서기국 공개 질문장

박근혜가 부정선거를 통하여 《대통령》갑 루를 집어쓴지 1년이 된다. 박근혜는 선거제와 취임후 말끝마다 리명박 《정권》파의 《차별화》와 《대북정책의 진화》, 《예신》과 《신뢰》를 의뢰하면서 《영화와 공동발전의 길》이니, 《새로운 한반도 시대》니 하는 등으로 별의별 너스레를 다 떨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집권 첫해가 끝나가고

있는 오늘 온 겨레는 북남관계가 처한 엄혹한 현실에 분격을 금치 못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너투리였는가를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전체 조선민족과 함께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박근혜당파의 죄악을 준엄히 단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개질문장을 발표한다.

바지입은 선임자보다 더 득한 치마두른 청와대안방주인의 대결광기에 만사람이 영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박근혜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박근혜당은 그것도 부족하여 백주에 우리 주민들을 유인암지하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각종 도발의 원흉인 박근혜당이 그 누구에 대해 《도발》이니 뉘니 하는것은 적반하장이지 아니는가.

박근혜당은 그것도 부족하여 백주에 우리 주민들을 유인암지하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각종 도발의 원흉인 박근혜당이 그 누구에 대해 《도발》이니 뉘니 하는것은 적반하장이지 아니는가.

박근혜당은 그것도 부족하여 백주에 우리 주민들을 유인암지하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각종 도발의 원흉인 박근혜당이 그 누구에 대해 《도발》이니 뉘니 하는것은 적반하장이지 아니는가.

1.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리명박 《정권》의 대결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리명박 《정권》의 대결정책과 다른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교활성과 악랄성에서 그것을 통가하고있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은 의제와 결탁하여 우리를 무장해제하고 북침과 체제대결방향을 실현해보려는것으로서 그 내용과 본질이 리명박 《정권》의 악명높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과 일맥상통한다. 오히려 그것을 《신뢰》라는 허울좋은 보자기로 감싼 매우 간교하고 흉악한 대결정책이다. 박근혜당파 내내고있는 《원칙론》과 《원칙론》 역시 새로운것이 아니라 리명박

당이 6.15를 부정하고 체제대결을 추구하면서 들고나왔던 《원칙외교론》과 《체제변화론》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박근혜당은 북남선인들을 전면부정하다못해 수뇌상봉대화책을 외곡남조하여 공개함으로써 그 기만적용과 그릇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최고주권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고 반공화국대결과 북침핵전쟁정책에 더욱 광범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리명박 《정권》의 연장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대결 《정권》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박근혜는 입이 열개라고 그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있는가.

3. 신뢰인가 대결인가.

박근혜는 그 무슨 《신뢰조성》을 떠들며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한걸음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돌아앉아서 《북의 체제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느니, 《진정한 변화의 길에 들어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뱉으면서 우리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갔다.

6. 비방중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중지는 누가 해야 하는가.

박근혜당은 그것도 부족하여 백주에 우리 주민들을 유인암지하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각종 도발의 원흉인 박근혜당이 그 누구에 대해 《도발》이니 뉘니 하는것은 적반하장이지 아니는가.

2.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미국과의 결탁 밑에 북침전쟁행동이 더욱 위험하게 벌어졌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는 핵항공모합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등 최신핵전쟁장비들이 더 많이 쏟아져서 1년내내 그칠 사이없이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미국의 전쟁하수인이 되어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량 반입하여 군비경쟁을 더욱 촉발시킨것도 피뢰당이며 우

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역제전략》에 맞도장을 찍으면서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극구 총동질해나간것도 역적당이다. 《국군의 날》행사와 《천안》호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인 등을 계기로 사상최대의 모략광란극을 벌리면서 대결과 전쟁열을 악화해 고취한것도 다름아닌 박근혜당파이다. 이 모든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킨 장본인이 미국과 그 주주 피뢰당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4. 외세가 우선인가 민족이 우선인가.

박근혜는 집권후 《한미동맹강화》, 《포괄적동맹관계》니 하면서 누구보다 내외 결탁을 강화하였다. 심지어 박근혜와 이 당파는 《한미동맹관계》가 확고하여야 《남북관계도 잘 풀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북남관계를 미국의 대조선전략정책에 철저히 복종시켰다. 그런가 하면 《전시작전권한환》을 연기하고 미군감시비를 더 많이 부담하듯 값싼 미군무기들을 마구 구입하고 미국독점자본에 시장을 전면개방하는 식으로 남조선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미국의 식민지구렁렁이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여지게 하였다. 박근혜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여 동족을 악랄하게 협박하는 전쟁도발을 극구 총동질해나간것도 역적당이다.

5. 누가 도발자인가.

박근혜당은 입만 벌리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면서 그것으로 저들의 대결과 전쟁행동을 정당화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도발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박근혜당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피뢰부수세당은 미국과 아합하여 국제법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발사》로 생트집을 걸면서 《세계》소동으로 도발해나갔는가 하면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의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핵시험을 결코들면서 류제없는 반공화국압살소동과 핵전쟁광란을 일으켰다. 남조선에 각종 핵공격수단들을 끌어들이고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소동에 미쳐달리고있는것도, 서해에서 공공연히 무력도발을 일삼고있는것도 미국과 피뢰후진당들이

로동운동단체에 대한 파쇼적탄압만행을 강력히 규탄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이 괴뢰경찰의 폭압소동에 항의

22일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이 민주로총에 대한 괴뢰경찰의 악랄한 폭압소동에 항의하였다. 통합진보당은 경찰이 민주로총에 대한 수색행각이 격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5 000여명의 폭압무력을 내몰아 민주로총 본부를 점거하며 무자비한 폭압에 돌아섰다고 규탄하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 폭압소동은 청와대의 방조와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의 폭압은 《정부》가 장에 물을 없애고 민영화를 기어코 실현하려는 심산을 보여준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로조들의 정당들 투쟁을 탄압하는것은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길이라는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은 민주로총에 대한 폭거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화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보였다고 단죄하였다. 한편 참여연대 로동사회위원회는 불리척적이란 저들의 국

면을 타게하려는 《정부》와 경찰에 모든 책임을 물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사회진보연대는 오늘의 폭압이 앞으로 범국민적항쟁의 도화선이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 *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대표들이 23일 민주로총 회의실에서 괴뢰경찰의 폭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경찰이 22일 민주로총 사무실들에 뛰어들어 판동을 부린대

고 하면서 박근혜와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고있다. 그들은 당국이 심각한 비정규직차별제도를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철도로조가 피뢰당국의 민영화정책을 반대하여 21일 서울의 철도광장에서 3 000여명의 로조원들의 참가하여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철도에 대한 무책임한 경영으로 빚을 지게 한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떠들며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로조투쟁의 본질을 외규하며 폭압을 가

고하고있다. 그들은 당국이 심각한 비정규직차별제도를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철도로조가 피뢰당국의 민영화정책을 반대하여 21일 서울의 철도광장에서 3 000여명의 로조원들의 참가하여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철도에 대한 무책임한 경영으로 빚을 지게 한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떠들며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로조투쟁의 본질을 외규하며 폭압을 가

국제레스링연맹 올림픽몸무게급 발표 국제레스링연맹이 17일 스위스에서 2016년 리오 데 제아이로 올림픽경기대회 레스링종목의 남녀몸무게급을 발표하였다. 련맹은 여자자유형에 2개의 몸무게급을 추가하고 대신 남자자유형과 고전형에서 각각 한개의 몸무게급을 줄였다. 결과 리오 데 제아이로 올림픽경기대회

여자자유형: 48kg급, 53kg급, 58kg급, 63kg급, 69kg급, 75kg급 국제레스링연맹이 주관하는 경기대회를 속 세계 및 대륙선수권대회 등을 위해 련맹은 남자자유형에 61kg급과 70kg급, 남자고전형에 71kg급과 80kg급, 여자자유형에 55kg급과 60kg급을 추가할 것이다. 청년 및 청소년경기의 몸무게급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이 민주로총에 대한 괴뢰경찰의 악랄한 폭압소동에 항의하였다. 통합진보당은 경찰이 민주로총에 대한 수색행각이 격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5 000여명의 폭압무력을 내몰아 민주로총 본부를 점거하며 무자비한 폭압에 돌아섰다고 규탄하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 폭압소동은 청와대의 방조와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의 폭압은 《정부》가 장에 물을 없애고 민영화를 기어코 실현하려는 심산을 보여준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로조들의 정당들 투쟁을 탄압하는것은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길이라는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은 민주로총에 대한 폭거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화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보였다고 단죄하였다. 한편 참여연대 로동사회위원회는 불리척적이란 저들의 국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로 씨 아 에서 로씨야가 국가공무원들속에서 부정부패행위를 없애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최근 5년동안 이 나라에서는 24만 2 000건의 부정부패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올해에만도 그러한 행위를 한것으로 하여 3 500명여가 기소되었다고 한다. 이 란 에서 이란유주개발기관이 11일 유인유주비행을 실현할 목적으로 곧 《보쉬가르》로켓테를 발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사가 이루어지면 《카보쉬가르》로켓테발사의 7번째 성공으로 된다고 한다. 또한 이란에서 부셰르주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2014년부터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100만kw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들이 이에 대해 밝혔다. 블리비나에서 블리비아의 통신위성 《투빠오 카파리》가 21일 중국의 서왕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되었다. 《장정-3호》(울)은반로켓테에 탑재되어 발사된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하였다 고 한다. 위성은 주로 블리비아와 주변 지역의 방송, 통신과 원격교육 및 의료 등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사업에 이용될 것이다. 블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시정위성발사센터를 방문하여 현정에서 위성발사를 관할

자멸에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 일본에서 준비가 증강되고 헌법정정이 다그쳐지고있는 속에 얼마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반동들이 국민들의 반대와 사회계의 비난같은것은 관개 없이 온산대국외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번엔 채택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보기도 하자. 법에 의하면 정부각료 등은 특정비밀을 지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상은 사실상 최고권한을 가지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 법대로 하면 앞으로 일본 반동들은 모든 정보들을 기기에 포함시킬수 있다. 법체적으로 하여 아베를 비롯한 일본반동들은 저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새나가는것을 막고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 법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부당한 정책에 대해 견제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군사대국화에 질주하는 일본반동들의 행동을 지난 17일 일본내각회의에서 채택된 《3개의 안보화살》로 불리우는 문건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방위계획대장》, 중기방위력증진계획과 첫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속한다.

자멸에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 새로운 《방위계획대장》에서 일본반동들은 앞으로 루헤공(사위대)의 《방어력과 대응력》을 높일데 대해 초야박했다. 중기방위력증진계획에 의하면 일본은 앞으로 5년동안의 방위예산을 2.4 조 7 000억파운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또한 독상《사위대》에 심할한임무를 책임진 《수륙기동대》를 신설하고 최선무장장비들을 구입하려 하고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일본이 앞으로 새로운 무기수출전략을 제정할것이라고 지적되어있다. 이것은 일본이 이미 있는 대량의 무기에 만족하지 않고 군수품유역을 확대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번엔 일본반동들은 《3개의 안보화살》로 불리우는 문건들을 채택하면서 그 무슨 《주변위협》이라는 구실을 들고나왔다. 마치도 그 무슨 《위협》을 막기 위해 이러한것들이 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주장은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한 궤변에 불과하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실을 찾는데에 있다. 실지로 안전보장전략에서